

싱가폴을 통해서 본

# 저출산 문제 살펴보기

- 싱가포르 리센롱 수상 연설문 중 발췌 -

저출산 문제는 일본, 한국, 홍콩, 유럽 등 모든 선진국에서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가톨릭 국가인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유일하게 예외적이다. 싱가포르에서도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국가문제로 결혼, 자녀, 육아,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저출산은 가치문제

저출산은 가치와 우선순위의 문제이며 재정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사람들은 아기를 원하고 사랑하기 아기를 갖기를 원한다. 아기는 행복한 가정생활로 아기를 키우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아이가 없다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기를 키우는 것은 돈이나 커리어 승진과 바꿀 수 없다. 아이를 셋 가진 나의 친구는 경제 척도 (economies of scale)를 이야기 한다. 즉 아이가 셋 있으면 서로를 돌보고 배우고 가르치기 때문에 두 자녀를 키우는 것은 한 자녀를 키우는 것의 2배로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몇 명을 언제 낳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이를 잘 키

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 가정, 사회 태도 변화 필요

저출산은 태도변화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혼남녀, 부부, 고용주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직원 임신 하었다고 해고해서는 안되며 임신한 여성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미국의 성공적인 기업 즉 IBM 혹은 휴렛패커드와 같은 기업들을 보면 임신/출산 여성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잘 대해 준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잘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고 믿고 있다.

미혼남녀의 태도가 가장 변화시키기 어렵다. 배우자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하며 드라마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면 희망이 없다. 한 친구는 자신의

20대 후반 조카에게 결혼을 하라고 충고하자 조카는 '나는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고 우울할 때 기운나게 해주고 저녁때 나를 돌보아 줄 남성을 원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내 친구는 '너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TV가 필요하다'고 충고하였다. 그 후 조카는 마음을 바꾸어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행복한 아이 엄마가 되었다.

과거에는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현재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들도 밖으로 나가 일하고 돈을 벌고 있다. 이제는 가사와 자녀양육도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부담하고 공동책임으로 해나가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다. 이러한 현실에 맞게 의료보험도 새롭게 개정하여 여성과 남성의 의료보험 수혜를 동등

하게 할 계획이다.

필자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데 최근에 4살짜리 아이와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인 한 여성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거기에는 가정부, 출산비용, 출산 및 양육휴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 세 가지는 아이를 키우는데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먼저 출산휴가를 현재 8주에서 셋째 그리고 넷째자녀의 출산 시 12주로 연장할 계획이며 그 추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여 고용주가 여성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양육수당은 있으나 영아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데 향후 매달 약 400달러(싱가폴달러)의 센터중심 영아양육수당(center-based infant care subsidy)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양육휴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5주간의 출산휴가를 4주만 쉬고 1주는 자녀출산 후 7년 동안 일년에 이틀씩 양육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2주를 더 쉬게 되는 것으로 애가 아플 때, 선생님을 불러 가야 할 때, 아이가 소풍갈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호주, 영국과는 달리 싱가포르

폴에서는 가정부(maid)를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정부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가정부세(maid levy)를 인하하겠다.

조부모는 아이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 핀란드와 캐나다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조부모가 10마일 이내에 사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아이들의 수가 많다고 한다.

필자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앞으로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둘째 셋째 아이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베이비 보너스를 첫째, 넷째 아이에게도 확대할 계획이다.

### 결혼과 자녀, 가족이 삶의 우선순위 되도록

직장과 개인생활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고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할 시간조차 없다. 일과 여가시간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일과 개인생활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부서에 가정생활사(family life officer)를 두고 있습

니다. 이 가정생활사는 저녁 11시가 되면 모든 과에 이메일, 회람 등을 돌려 퇴근하여 가족과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다. 미국은 일주일에 5일간은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은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철저히 휴식하거나 자원봉사하거나 자신만의 시간 혹은 가족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앞으로 주 5일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을 유지하되 근무일은 주 5일로 할 예정이다. 이는 융통성 있게 어떤 기업이나 단체는 토요일 혹은 월요일 등 형편에 맞게 쉬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혜택이나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싱가포르 사람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마인드를 바꿀 수 있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이 싱가포르 역사의 일부가 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기회를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번역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과 과장 이영숙